

태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도급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미이행 등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주)*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 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태림종합건설(주)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 원(2024년)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이다.

태림종합건설(주)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겹침(Overlap) CIP(Cast-In-Place)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됨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주)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주)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태림종합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그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는,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태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책임자	소 장 김수주 (051-460-1010)
		담당자	과 장 나경복 (051-460-1040) 조사관 심원용 (051-460-1042)

1

법 위반 내용

□ 태림종합건설(주)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접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 크레인, 굴착기, 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

○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주)와 체결하였다.

* 부산진구청, 태림종합건설(주)는 2022. 12. 16. A사가 부담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중 부산진구청은 6,600만 원을, 태림종합건설(주)는 4,4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주)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 태림종합건설(주)는 A사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입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자에 대한 분쟁은 대금 증액 의무를 이행한 뒤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 한편, 태림종합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 증액받은 사실을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는,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조치내용)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 위원회 심의종결일까지도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었음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1 태림종합건설(주) 일반현황

1. 태림종합건설(주)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대표이사	설립일자	영위업종	매출액(2024년)
태림종합건설(주)	정○○	1994. 11. 1.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10,380

* 자료출처 : NICE BIZLINE, 표준 재무제표

참고 2 하도급법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생략)